



3면

새만금청, 중국 기업 투자유치에 '전철음'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3월 4일 목요일 (음 1월 21일) 제27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중기 연구개발 지원 본격

전북도, 테크노파크와 '혁신성장 R&D+' 공고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 총 50억원 지원키로

전북도는 상용화가 가능한 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R&D+(연구개발) 사업'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 혁신성장 R&D+ 사업'은 도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기업지원 등 관리를 담당한다. 지원분야는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

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등 약 35개 연구개발 과제이다. 과제당 지원금액은 2년간 최대 3억원 내외이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다. 도내 소재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중소기업 연구개발활동 자부담을 25%에서 20%로 완화하고, 사업참여 여건 보장을 위해 연구현장 감염예방을 위한 용품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전북도 R&D 종합정보시스템(http://md.jtp.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tp.or.kr) 사업안내 게시판 또는, 전북도 R&D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북형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은 기업별 가상계좌를 부여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출을 승인하는 예산관리 체계이다. 도는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지원금과 과제수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투명한 예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이 많이 있다"며 "혁신자원과 연계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성장 R&D+(연구개발)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총 448억원을 투입해 458건의 연구개발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유호상 기자



노란 산수유꽃 '만개' 전북지역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3일 전주 한옥마을 전주천 일대에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어 있다.

전북도,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 추진

262억원 예산 투입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4개 분야 8개 과제 마련 취약시기 불시 단속 강화...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무관용 원칙

전북도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악취피해 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비 지원 등 적극적인 악취 정책을 펼친다. 도는 262억원 예산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하는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는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악취는 바람 등 기상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느끼는 정도가 다른 감각공해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업장별 악취 발생지점에 대해 관리 소홀, 저감시설 설치 미흡 또는, 잘못된 운영방법 등으로 대기 중에 그대로 확산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지난해 도는 30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군별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전·후 악취검사를 통한 개선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는 평균 56%, 시설 내부 또는 배출구에서는 98%의 악취저감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는 도 환경·축산부서와 협업해

담당부서별 악취배출시설 지원대상을 사전 구분해 저감시설 설치부터 기술 지원 등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서는 대기·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퇴비화시설 등에 대해 지원한다.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중 액비화시설에 대해 사업지원부터 관리 운영 방법까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자등분사시설 설치 등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247억2,000만원, 무인악취포집기 등 실시간 감시장비 설치 14억4,000만원, 악취모니터링 운영 등 협의체 추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지난 2019년부터 혁신도시 악취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 축산시설에 저감시설 설치 등 187억원의 예산 투자한 결과에 대해 개선효과 분석과 추가대책을 발굴하고자 국비 3억을 투자해 악취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발생이 심한 사업장 151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기술지원단도 운영해 악취저감 기술 전수 및 저감시설 운영요령 교육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도는 악취민원 사업장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동시에 주·야간 등 취약시기에 불시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 해결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은 악취민원 발생 시 시·군과 협력해 수시단속 강화 등 강도 높은 악취검사를 추진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제도권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건 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 악취정책은 도정 11대 핵심프로젝트로써 도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저감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도 관료부서 및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도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겠다"고 힘써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도시 새뜰마을 공모 '전국 최고'

도, 전주·군산·김제 등 최종 선정 국비 38억 확보

전북도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도는 취약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도시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3개 사업(전주, 군산, 김제)이 최종 선정돼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15년 2개소를 시작으로, 총 18개소에 국비 526억원 등 759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안전·위생여건이 취약한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한층 더 개선할 전망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

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2021년도 도시새뜰마을 사업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도는 도민이 성장 혜택을 모두 누리도록 소외된 것을 우려해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전략회의 개최 등 협업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뜰마을사업이 필요한 곳을 발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작성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전북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심도 높은 평가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선정·보완해 서면·현장·발표 등 국토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같은 결과로 도와 시·군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총 16개소 중 전국 최대인 3개소가 선정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뜰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해 만드는 모두가 잘사는 전북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시 생활이 보장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국관광공사/가이드 한국관광 100선 100 Best Travel Tourist Spots of Korea 치유와 힐링이 있는 곳 남원



광복루원

삼천예촌

바래봉 철쭉

삼원시립김병중미술관